

逸失 醫學文獻 『尹方』의 문헌적 고찰

A Study on the Lost Ancient Medical Book 『Yunbang』

盧 基 春(Ki-Chun Roh)*

〈 목 차 〉

- | | |
|------------------------|------------------------------|
| I. 緒 論 | III. 『尹方』의 內容 분석 및 문헌적 특성 |
| II. 『尹方』의 撰述 問題에 關한 檢討 | 1. 『尹方』의 內容 분석 |
| 1. 撰述地(또는 撰述國) | 2. 『尹方』의 文헌적 특성 |
| 2. 撰者 및 撰述時期 | IV. 結 論 |
| | [부록] 『尹方』의 復元 |

초 록

본 연구는 逸失 醫學文獻인 『尹方』에 대하여 撰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文獻의 性格을 살펴보고, 『山林經濟』의 여러 분야에서 散見되고 있는 『尹方』을 執一하여 그 內容을 復元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서는 17세기 중엽 이후 또는 18세기 초 이전에 海平 尹氏 家에서 우리나라 醫人들의 經驗方을 수집하여 엮은 醫書로 추정되며, 현대임상분야별로 대비하여 본 결과 의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종합의서의 문헌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 윤방, 의서, 산림경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aspects in writing the lost ancient medical book *Yunbang*, whose title listed on no other catalogs. And examined the bibliographical properties of *Yunbang*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citations collected from the book *Sanlimgyoungjae*. *Yunbang*, the collective empirical prescriptions of native medicines, is supposed to be made by the Yun families during the period of from the mid 17th to the early part of 18th centuries.

Key Words : Yunbang, medical book, Sanlimgyoungjae

*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專任研究員

· 접수일 : 2001. 2. 10 · 최초심사일 : 2001. 2. 24 · 최종심사일 : 2001. 3. 9

I. 緒 論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수많은 醫書 중 朝鮮時代의 대표적 의서인 『東醫寶鑑』과 같이 현존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의서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고서목록이나 기타 관련문헌에서 그 서명조차 찾아볼 수 없는 失傳된 의학문헌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尹方』은 현재 어떤 고서목록에도 전혀 수록되지 않은 문헌으로 編纂者는 물론 편찬시기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逸失 醫學文獻이다. 다만 1715년경 洪萬選이 편찬한 『山林經濟』에 일부 내용과 함께 引用書目이 표기되어 있는 바, 『山林經濟』의 醫學分野(攝生, 救急, 辟瘟, 辟虫, 治藥)에서 『東醫寶鑑』(376회), 『經史證類備急本草』(354회), 『壽養叢書類輯』(221회), 『醫學入門』(134회), 『尹方』(120회) 등 5번째로 많은 引用回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학분야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처치법 및 질병의 치료 등을 다루고 있는 救急에서는 『東醫寶鑑』(324회) 다음으로 113회가 인용되어 洪萬選이 『山林經濟』를 편찬하면서 참고한 문헌 중 인용빈도수가 아주 높은 귀중한 문헌으로 밝혀졌다.¹⁾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逸失 醫學文獻인 『尹方』에 대하여 撰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撰者, 撰述時期, 撰述國)과 文獻的 性格을 살펴보고, 『山林經濟』의 여러 분야에서 散見되고 있는 『尹方』을 執一하여 그 內容을 復元해 보고자 한다.

II. 『尹方』의 撰述 問題에 關한 檢討

『尹方』은 현재 撰者, 撰述時期 그리고 撰述地(또는 撰述國) 등 찬술에 관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련 문헌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山林經濟』에 인용된 『尹方』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찬술에 관련된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1) 『山林經濟』의 引用文獻과 引用回數에 관해서는 拙稿 『山林經濟의 書誌學的 研究』(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6)를 참고바람.

1. 撰述地(또는 撰述國)

三木榮은 『朝鮮醫書誌』에서 “李國美方, 全方, 尹方, 白醫方, 吳方, 文生方, 智異山僧方 등은 당시 세상에 행해지고 있던 方書로서 洪萬選의 山林經濟에 인용되었으며 모두 조선의 逸佚醫書이다”²⁾라 하였고, 또한 金斗鐘은 『韓國醫學史』에서 “... 明代의 方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 醫人들의 經驗方을 수집한 것이다”³⁾라 하였다. 그러므로 본서는 당시 朝鮮에서 행해지고 있던 自家의 經驗方을 기초로 하여 편찬된 醫書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尹方』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서의 찬술지(또는 찬술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삼고자 한다.

『尹方』의 100여개 항목 중 病症에 대하여 民間療法으로 추정되는 항목들의 치료법(또는 약물)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民間療法으로 추정되는 치료법(또는 약물)

病症	治療法 또는 약물
猝死	◦ 발 뒤꿈치와 엄지 발톱을 아프게 깨물어준다 ◦ 얼굴에 침을 발라주거나 우물의 진흙을 발라주고 猝死者의 이름을 부른다
猝疝痛	◦ 붉은 소금 ◦ 千年瓦(오래된 기와)
猝癲狂	◦ 白狗血(흰개의 피) ◦ 敗天公(현 패랭이)
咳逆	◦ 방아공이(春杵) 머리에 붙은 가는 겨
猝噎	◦ 방아공이(春杵) 머리에 붙은 가는 겨
急喉閉	◦ 生油 ◦ 頂心(정수머리)의 머리카락을 아프게 잡아 뽑는다
脣腫	◦ 生鼠(살아있는 쥐)
疔腫	◦ 黃泥 ◦ 사람의 수염을 태워 붙이다
陰蝕瘡	◦ 오래동안 소금을 담았던 가마니 ◦ 가래와 호미 구멍에 낀 황토
鍼瘡出血不止	◦ 사람 똥을 태운 재
豆腐毒	◦ 着垢組(때묻은 땀기) ◦ 着垢衣領皮(때묻은 동정)
湯火傷	◦ 毛段(용단)을 태운 재
金刀傷	◦ 마른똥(乾人尿)
熊虎咬傷	◦ 月經衣布
豬咬傷	◦ 屋漏水(지붕이 새어 흘러내린 물)
鼠咬傷	◦ 生薑으로 고양이 입을 문질러 침을 문혀 발라준다
蛇咬傷	◦ 자기 컷속의 腦子(귀에 지)
蜈蚣咬	◦ 수탉 볏의 피(雄鷄冠血)

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南大阪印刷センター, 1973. p. 118.

3)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p. 33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 1호)

雜虫傷	◦ 닭똥 ◦ 鹽湯(소금물)
諸虫入耳鼻	◦ 거울이나 陶器를 쳐서 소리를 내면 나온다
蟻子入耳	◦ 猪肉 ◦ 燈心
誤吞諸物	◦ 도끼 같은 물 ◦ 아욱 삶은 즙 ◦ 狗頭(개머리) 삶은 물 ◦ 형크리진 머리카락 태운 재 ◦ 木油梳(나무로 만든 기름긴 빗)
諸骨鯁在咽	◦ 大蒜으로 코를 막으면 즉시 나온다 ◦ 東流水(동쪽으로 흐르는 물) 1잔을 떠놓고 동향하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물 위에 龍字를 쓴 다음 마신다
諸物入目	◦ 밤송이 달인 물 ◦ 蟻螞(곰뽕이) 즙 ◦ 菁菜(순무)의 즙 또는 소금에 볶은 가루
難産	◦ 兔頭骨 ◦ 中指로 솔 밑의 그을음을 채취하여 아이의 발바닥에 교획해 준다
胞衣不下	◦ 兔頭骨
産後諸病	◦ 兔頭骨 ◦ 戶限下土(문지방 아래 흙) ◦ 죽은 쥐 ◦ 烏鷄

위의 <표 1>과 같이 27개 病症을 치료하는 療法들은 볶은 소금, 千年瓦(오래된 기와), 白狗血(흰개의 피), 敗天公(현 패랭이), 방아공이(春杵) 머리에 붙은 가는 겨, 生油, 生鼠(살아있는 쥐), 黃泥, 사람의 수염, 소금 가마니, 가래와 호미 구멍에 낀 황토, 사람 똥, 着垢組(때문은 덩기), 着垢衣領皮(때문은 동정), 毛段(용단)을 태운 재, 月經衣布, 屋漏水(지붕이 새어 흘러내린 물), 고양이 침을 묻힌 生薑, 腦子(귀에 지), 수탉 벚의 피(雄鷄冠血), 닭똥, 鹽湯(소금물), 猪肉, 燈心, 도끼 같은 물, 아욱 삶은 즙, 狗頭(개머리) 삶은 물, 형크리진 머리카락 태운 재, 木油梳(나무로 만든 기름긴 빗), 大蒜, 밤송이 달인 물, 蟻螞(곰뽕이)를 즙, 菁菜(순무)의 즙 또는 소금에 볶은 가루, 兔頭骨, 戶限下土(문지방 아래 흙), 죽은 쥐, 烏鷄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발 뒤꿈치와 엄지 발톱을 아프게 깨물어준다’ ‘頂心(정수머리)의 머리카락을 아프게 잡아 뽑는다’ ‘東流水(동쪽으로 흐르는 물) 1잔을 떠놓고 동향하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물위에 龍字를 쓴 다음 마신다’ ‘中指로 솔 밑의 그을음을 채취하여 아이의 발바닥에 교획해 준다’와 같은 방법들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豆腐毒의 치료방법인 ‘着垢組(때문은 덩기) 혹은 着垢衣領皮(때문은 동정)’의 ‘덩기’와 ‘동정’은 우리의 전통적인 首飾과 服飾에 나타나는 것들로서 ‘덩기(唐只)’는 이미 三國 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首飾으로 朝鮮朝에 있어 덩기는 未婚女 뿐만 아니라 婦女子들도 머리를 修髮하는 것⁴⁾이 일반화 되었고, ‘동정’은 高麗 時代를 前後한 것이라고 하는 貴婦女服의 그림

에 ‘동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高麗 時代に 들어와서 上代社會의 襪⁵⁾의 遺物로 추측되고, 흰 것으로 하여 자주 갈아 달게하여 衛生 및 服飾美的인 考慮에서 나온 것⁶⁾으로 보아 ‘댕기’와 ‘동정’ 모두 우리의 문화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首飾과 服飾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病症에 대한 治療방법 및 藥物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 治療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三木榮과 金斗鐘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당시 세상에 행해지고 있던 우리나라 醫人들의 經驗方을 수집하여 엮은 醫書로 단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서의 撰述地(또는 撰述國)는 朝鮮에서 찬술한 醫書라고 할 수 있다.

2. 撰者 및 撰述時期

『尹方』의 撰者 역시 현재까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본서의 書名에 보듯이 尹氏 姓을 가진 撰者의 저작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山林經濟』에 수록된 醫書名에는 朝鮮에서 찬술된 白醫方, 吳方, 李醫方, 許方 등의 의서는 書名이 모두 姓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尹氏가 自家의 經驗을 바탕으로 엮은 醫書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저자의 高증에 관해서는 相關문헌이 발굴될 때까지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 다만 참고로 『醫科先生案』⁷⁾을 기초로 1498년(燕山君 4年)부터 『山林經濟』의 편자 洪萬選이 타계한 1718년(肅宗 44年)까지 醫科試驗(式年 및 增廣)의 급제자 중 尹氏 姓의 합격자들을 추적하여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尹方』이 오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찬술된 문헌으로 의과시험 합격자 가운데 찬자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의도이다.

<표 2> 尹氏 醫科 급제자 명단(1498년 ~ 1718년)

施行年	貫鄉	姓名	官名	父(官名)	祖(官名)	曾(官名)
辛卯式年(中宗 26)	永川	尹 璣		繼孫		
庚寅增廣(宣祖 23)	【未詳】	尹孝曾	內僉正			
丙子式年(宣祖 39)	坡平	尹知微	內正	覃休(通政)	柴(生員)	漑(文右相)
	【未詳】	尹惟式				

4)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株)敎文社, 1994. p. 284.

5) 襪이란 襦와 袍의 깃, 도련, 수구 등에 두른 색동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北方系統은 물론 중국에 있어서도 深衣 등에 襪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男女가 함께 두었던 것이 아니었다.(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株)敎文社, 1994. p. 29)

6)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株)敎文社, 1994. pp. 164-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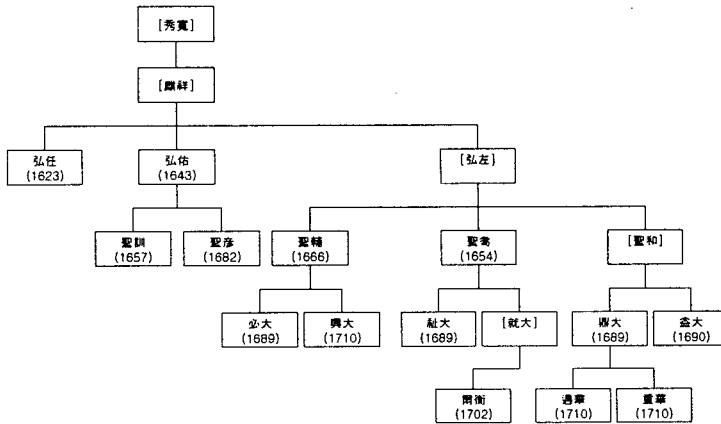
7) 『醫科先生案』, 韓國醫學大系 50. 서울: 醫聖出版社, 1988. pp. 823-965.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 1호)

己卯式年(光海 7)	【未詳】	尹應玆	久任	龍		
戊午式年(光海 10)	坡平	尹 戡	內正	德恭	百源	元老
	【未詳】	尹挺敏		效淳		
辛酉式年(光海 13)	竹山	尹誠吉				
癸亥增廣(仁祖 원년)	海平	尹弘任	內嘉善	麒祥	秀寬	謙
己亥增廣(仁祖 13)	玄風	尹洞吉	教授	香元(通政)	命我	長全
	永川	尹悌信		德守	世耘	千福
壬午式年(仁祖 21)	海平	尹弘佑	內正	麒祥	秀寬	謙
甲午式年(孝宗 5)	海平	尹聖耆	內僉正	弘佐	麒祥	秀寬
丁酉式年(孝宗 8)	海平	尹聖訓	正	弘佑(內正)	麒祥	秀寬
庚子式年(顯宗 元年)	玄風	尹 稔	內通政	洞吉	香元(通政)	命我
壬人增廣(顯宗 3)	坡平	尹復三		商俊(嘉善)	孝男(嘉善)	鳳壽(司勇)
丙子式年(顯宗 7)	坡平	尹廷善	久任	信元	應淑	元香
	海平	尹聖輔	內同中	弘佐(僉正)	麒祥	秀寬
戊午倍增廣(肅宗 4)	豐壤	尹起股			敬生	
	【未詳】	尹禹萬				
戊午式年(肅宗 4)	坡平	尹斗興		復三	商俊(嘉善)	孝男(嘉善)
壬戌增廣(肅宗 8)	海平	尹聖彦		弘佑	麒祥	秀寬
己巳增廣(肅宗 15)	海平	尹祉大	內正	聖耆(內僉正)	弘佐(僉正)	麒祥
	海平	尹必大		聖輔(內同中)	弘佐(僉正)	麒祥
	海平	尹鼎大		聖和	弘佐(僉正)	麒祥
庚午式年(肅宗 16)	坡平	尹悌興		益三(司果)	商俊(嘉善)	孝男(嘉善)
	坡平	尹以興		錫三	商俊(嘉善)	孝男(嘉善)
庚午增廣(肅宗 16)	海平	尹益大		聖和	弘佐(僉正)	麒祥
癸酉式年(肅宗 19)	坡平	尹山海	奉事	重聲	商俊	之男(武科)
壬午式年(肅宗 28)	海平	尹爾衡	內正	就大	聖耆(內同中)	弘佐(僉正)
庚寅增廣(肅宗 36)	海平	尹興大	內知樞	聖輔(內同中)	弘佐(僉正)	麒祥
	海平	尹遇華		鼎大	聖和	弘佐(僉正)
甲午增廣(肅宗 40)	海平	尹重華	內正	鼎大	聖和	弘佐(僉正)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98년(燕山君 4年)부터 山林經濟의 편자 洪萬選이 타계한 1718년(肅宗 44年)까지 醫科試驗(式年 및 增廣)에 급제한 사람들 중 尹氏 姓의 급제자들은 33인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을 貫鄕別로 살펴보면 永川 2인, 竹山 1인, 坡平 8인, 豐壤 1인, 海平 14인, 玄風 2인, 그리고 貫鄕이 미상인 尹氏는 5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坡平에서 8인, 海平에서 14인이 醫科試驗에 급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海平 尹氏 家에서는 아래 <그림 1>

과 같이 癸亥(1623년)增廣試에 尹弘任, 壬午(1643년)式年 尹弘佑, 甲午(1654년)式年 尹聖壽, 丁酉(1657년)式年 尹聖訓, 丙子(1666년)式年 尹聖輔, 壬戌(1682년)增廣 尹聖彦, 己巳(1689년)增廣 尹祉大, 尹必大, 尹鼎大, 庚午(1690년)增廣 尹益大, 壬午(1702년)式年 尹爾衡, 庚寅(1710년)增廣 尹興大, 尹遇華, 甲午(1714년)增廣 尹重華 등 癸亥(1623년)增廣부터 甲午(1714)增廣試까지 4대가 연속해서 醫科試驗에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그림 1> 海平 尹氏 醫科試驗 及第者 系譜圖

한편, 坡平 尹氏 家에서는 丙子(1606년)式年試에 尹知微를 필두로 하여 戊午(1618년)式年 尹楫, 壬人(1662년)增廣 尹復三, 丙子(1666년)式年 尹廷善, 戊午(1678년)式年 尹斗興, 庚午(1690년)式年 尹悌興, 尹以興 형제가 동시에 醫科試驗에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坡平 尹氏 家의 계보를 살펴보면 壬人(1662년)增廣試의 尹復三과 그의 아들 尹斗興이 戊午試(1678년)式年에 연속 합격한 2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1대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尹方』이 당시 세상에 행해지고 있던 우리나라 醫人들의 經驗方을 수집하여 엮은 醫書이거나 또는 尹氏 家에 家傳된 醫書로 단정한다면 본서는 坡平 또는 海平의 尹氏의 家에서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더욱 본서가 尹氏 家에 家傳된 醫書로 단정한다면 집안 대대로 醫師를 배출한 海平 尹氏의 家에서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撰述時期 또한 관련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尹方』의 내용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前出 醫學文獻과 비교하여 찬술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⁸⁾ 대표적인 前出 醫學文獻인 高麗 高宗代 大藏都監에서 간행되고, 朝鮮 太宗 17년(1417) 慶尙道 義興에서 重刊된 『鄉藥救急方』과 비교해 본 결과 ‘中風(01), 陰蝕瘡(06), 蜈

蚣咬(02), 難産(05), 諸魚骨鯁在咽(04)' 등 5개 항목이 동일하였다. 그리고 世宗 15년(1433)에 편찬되어 仁祖 11년(1633)에 訓練都監提調 李曙가 內醫院提調 尹昉과 힘을 합하여 訓練都監 小活字로 重刊한 『鄉藥集成方』과 대조해 본 결과 '急喉閉(02, 03), 陰蝕瘡(05, 06), 丹毒(01), 熊虎咬傷(01), 犬咬傷(01), 猪咬傷(01), 蛇咬傷(02), 蜈蚣咬(01, 02), 蜂螫傷(01), 蟻子入耳(01), 誤吞諸物(04), 諸魚骨鯁在咽(04), 難産(03), 難産(05), 産後諸病(06), 陰病(01, 04), 瘡疾(02, 03), 癰癖(01)' 등 21개 항목이 동일하였다. 또한 世祖때에 편찬된 『救急方』⁹⁾과는 '猝死(02), 客忤猝厥(01)' 등 2개 항목, 成宗 20년(1489) 成宗의 命을 받아 內醫院提調 尹壕, 西河君 任元濬 등이 편찬한 『救急簡易方(診解)』과는 '猝死(01), 客忤猝厥(01), 中風(01), 猝顛狂(01), 急喉閉(01, 03)' 등 6개 항목, 許浚이 世祖때에 편찬된 『救急方』을 宣祖 34년(1601)에 診解하여 宣祖 40년(1607)에 內醫院에서 간행한 『診解救急方』과는 '猝死(02), 熊虎咬傷(01), 蜂螫傷(01), 諸虫入耳鼻(01), 辟瘟(02, 03, 04, 05, 06)' 등 9개 항목이 동일함이 밝혀졌다.¹⁰⁾

이상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尹方』의 찬술시기를 추정해 보면, 위의 4개 醫學文獻 중 간행년도가 비교적 늦은, 즉 1607년에 간행된 『診解救急方』과 1633년에 重刊한 『鄉藥救急方』 등의 문헌에 일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尹方의 撰述 上限時期는 16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고, 下限時期는 洪萬選이 1710년부터 1715년 사이에 편찬한 『山林經濟』에 본서가 이미 편입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715년 이전 이미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尹方』의 찬술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본서는 우리나라 醫人들의 經驗方을 수집하여 엮은 醫書로 尹氏 家, 특히 海平 尹氏 家에서 찬술된 醫書로 사료되며, 撰述時期는 17세기 또는 18세기 초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尹方』에 관련된 좀더 정확한 문헌이 발굴될 때까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Ⅲ. 『尹方』의 內容 분석 및 문헌적 특성

『尹方』은 洪萬選의 『山林經濟』에 救急과 辟瘟의 2개 志에 걸쳐 총 120회가 散見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장에서는 山林經濟의 2개 志에 수록된 『尹方』의 內容을 각 條별로 살펴보고, 이를 다시 조선시대 초기의 綜合醫書인 『鄉藥集成方』 및 『醫方類聚』 各門에 대응시킨 다음

8) 『尹方』의 인용내용을 他 醫學文獻과 比較한 결과는 다음 연구과제인 『尹方』과 他 醫學文獻과의 比較研究에서 자세히 밝히고자 하며,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比較한 결과를 간단히 기술하였다.

9) 『朝鮮王朝實錄』, 世祖12년(1466) 6月條 “賜八道救急方各二件”.

10) 괄호 안의 數字는 항번호로 본 논문의 부록 『尹方』의 復元을 참조바람)

이를 다시 現代臨床 分野의 各科로 분류하여 본서의 문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尹方』의 내용분석

救急志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처치법 및 질병의 치료 등 의학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각 條별로 다루고 있는 분야로 山林經濟에 『尹方』이 인용된 條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猝死條는 갑자기 죽은 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절한 경우와 놀라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법을 서술하고 있고, 客忤猝厥條¹¹⁾는 주로 客忤의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中風條는 주로 입과 눈이 뻐뚱어지는 口眼喎斜의 치료법을, 中暑條는 더위를 먹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傷寒條¹²⁾는 寒邪가 몸에 침범하여 발병하였을 때 상한의 初症과 만성 2개의 증상으로 구분하여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다.

外腎이 줄어들고 아랫배가 아픈 것¹³⁾을 다룬 猝疝痛條는 가슴과 옆구리에 연결되는 疝痛의 치료법을, 猝癲狂條는 사람이 갑자기 狂症을 발하여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의 치료법이며, 大便不通條는 大便을 보지 못할 때 生桔梗을 항문에 꽂아 넣는 通便法을 소개하고 있다.

咳逆¹⁴⁾條와 猝噎條는 각각 딸꾹질과 갑자기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할 때, 急喉閉¹⁵⁾16)

- 11) 客忤는 中惡의 종류로 그 증상은 명치끝이 비트는 것 같이 아프고 불러오르고 그득하며 기운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른다(許浚, 『東醫寶鑑』. 雜病篇卷九 救急 客忤卒厥諸證 p.591, 下2-3행. “客忤者 中惡之類也 多於道間 門外得之 令人心腹絞痛 腸滿氣衝心胸 不即治亦殺人…”). 厥은 배가 그득해지거나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한나절이나 하루가 지나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許浚, 『東醫寶鑑』. 雜病篇卷九 救急 客忤卒厥諸證 p.591, 下6행. “…厥令人腹滿 或令人暴不知人 或至半日 遠至一日 乃知人…”).
- 12) 霜降 이후부터 春分 전까지 사이에 찬 이슬이나 서리를 맞으면 寒邪가 몸에 침범하여 병이 생기는 것으로 상한이라고 한다(許浚, 『東醫寶鑑』. 雜病篇卷一, 寒 p.378 上13행. “冬爲傷寒 從霜降以後 至春分前 凡有觸冒霜露 體中寒涼即病者 謂之傷寒(活人)”).
- 13) 許浚, 『東醫寶鑑』. 外形篇 卷四 前陰 p.311 下19行. “疝痛諸候 疝之爲病 外腎小腹作痛 或…”)
- 14) 해역은 氣가 위로 치밀어 올라와서 나는 소리를 말하며 민간에서는 딸꾹질이라고 한다(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五, 咳嗽 咳逆證 p.482, 上17-18行. “咳逆者 氣逆上衝而作聲也 俗謂之口逆是也 其發也…”)
- 15) 회염(會厭)의 양쪽이 부은 것을 민간에서는 쌍유아(雙乳蛾)라 하고 회염의 한쪽이 부은 것을 민간에서는 단유아(單乳蛾)라 하는데, 古方에서는 총체적으로 후비(喉痺)라 한다(許浚, 『東醫寶鑑』. 外形篇 卷二, 咽喉 p.252 下11-12行. “單乳蛾雙乳蛾喉痺 會厭之兩傍腫者 俗謂之雙乳蛾…會厭之 邊腫者 俗謂之雙乳蛾…古方通謂之喉痺”). 山林經濟에서는 喉痺를 喉閉라 하였다.)
- 16) 갑자기 목이 붓고 아파서 물도 넘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여 잠깐 사이에 죽게 되는 놀라운 병이다. (許浚, 『東醫寶鑑』. 外形篇 卷二, 喉痺 p.253 下8行. “急喉痺 …若夫卒然腫痛 水漿不入 言語不通 死在須臾 誠可驚駭(正傳)”).

條는 喉閉와 咽喉가 막혀 浮腫되었을 때, 그리고 急性喉痺 등의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다.

失欠脫頰條는 하품하다가 아거(牙車)가 어긋난 경우의 치료법이며, 腸頭出條는 大小人을 막론하고 창자가 나왔을 때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脣腫條는 입술에 난 상처의 치료법이며, 腦背腫¹⁷⁾條는 등에 나는 背腫에 관한 치료법을, 疔腫¹⁸⁾條는 疔腫이 처음 날 때의 치료법과 손가락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심하게 아픈 데를 치료하는 방법, 毒腫(毒腫)이 처음 발생할 때의 치료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陰蝕瘡¹⁹⁾條는 陰瘡의 蟲을 제거하는 방법, 陰莖이 腫瘡되거나 陰瘡으로 인하여 痛症을 느낄 경우, 陰瘡이 發毒된 경우, 陰의 주변에 瘡이 나거나 濕痺할 경우, 陰囊의 습양증, 그리고 唐瘡(창병)의 치료법 등 8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鍼瘡出血不止條는 鍼으로 인하여 상처가 나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의 지혈법이며, 丹毒條는 갑자기 몸에 丹沙를 바른 것같이 벌겋게 되었을 때의 치료법을, 癩疹²⁰⁾條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을 때, 특히 紅·黑色 隱疹의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다.

豆腐毒條, 燒酒毒條, 諸魚毒條, 菌蕈毒條 등은 각각 두부, 소주, 물고기, 독버섯 등을 過食, 過飲 또는 잘못 먹고 중독되었을 때의 해독법이고, 石藥毒條는 石藥²¹⁾에 中毒된 자를 解毒하는 방법이다.

湯火傷條, 金刀傷條, 砲矢傷條, 打壓傷條, 骨折筋斷傷條, 手足折傷條, 肢節脫解條, 杖傷條, 熊虎咬條, 犬咬傷條, 猪咬傷條, 鼠咬傷條, 蛇咬傷條, 蜈蚣咬條, 蜂螫傷條, 雜虫傷條 등은 각각 화상, 칼이나 화살 및 기타 기구에 의한 외상, 刑杖을 맞아 난 상처, 짐승에 물리거나 벌레에 쏘여 난 상처의 치료법이다.

諸虫入耳鼻條는 벌레가 귀나 코에 들어갔을 때의 처치법을, 蟻子入耳條는 개미(蟻子)가 귀에 들어 갔을 때의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誤吞諸物條는 나무꼬챙이(木屑), 돈(錢), 복숭아나 오얏(桃李), 머리카락(髮) 등을 잘못하여 삼켰을 경우, 諸骨鯁在咽條는 뼈가 목구멍에

17) 癩瘡가 나는 위치에 따라 腦腫과 背腫으로 부른다. 뇌종은 癩瘡가 뒤통수에 생기는 것이 뇌옹(腦腫), 뇌저(腦底), 뇌삭(腦樂)인데 대추골 위의 경계에 생긴 것이다[許浚, 『東醫實鑑』. 雜病篇 卷七, 癩瘡(上). p.539. 下2行. “癩瘡五發證. 正腦上一處起爲腦癰及腦底腦樂並在大椎骨上入髮際生”]. 그리고 背腫은 등(背)의 五臟俞血 부위에 생긴 癩瘡를 發背라고 하는데 가장 위중한 것이다[許浚, 『東醫實鑑』. 雜病篇 卷七, 癩瘡(上). 癩瘡五發證. p.539. 下5-6行. “背後五藏俞分 生癩瘡 是爲發背 最重” 滑子].

18) 정창(疔瘡)이 처음 생길 때 못머리 같은 것이 도드라져 나오기 때문에 정(疔)이라고 하는데許浚, 『東醫實鑑』. 雜病篇 卷八, 癩瘡(下), 疔瘡. p.550. 上4行. “疔瘡初發 突起如疔蓋 故謂之疔...”, 정창은 일정한 곳에 생기지는 않으나 팔다리, 머리, 얼굴, 가슴, 등(背)의 뼈마디에 생긴 것이 제일 위급하다[東醫實鑑 雜病篇 卷八, 癩瘡(下), 疔瘡. p.550. 下7行. “疔瘡發無定處 在手足頭面胸背骨節間最急...” 正傳].

19) 陰莖에 나는 瘡를 말하며, 주로 男子의 陰蝕瘡를 다루고 있다.

20) 벌건 딱지 같은 것이 피부 표면에 은은히 나타나면서 가렵기만 하고 붓거나 아픈 일은 없기 때문에 陰疹이라고 한다.[許浚, 『東醫實鑑』. 外形篇 卷三, 皮, 丹毒. p.285, 下13-14行. “疹者 紅點隱隱 皮膚表分 但作癢痒全無腫痛名曰癩疹...” 入門].

21) 藥物을 원료로 하는 藥材로서 硫黃, 雄黃, 砒礪 등이 있다.

걸렸을 때의 처치법을, 諸物入目條는 보리 까그러기(麥芒), 밤송이 가시(栗殼), 비사(飛絲)²²⁾ 등 異物質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치료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難産條는 양수가 조기에 파수된 후 胞(태아를 감쌌던 포막과 태)가 건조하여 胎兒가 나올 수 없을 때, 해산할 때에 陽이 먼저 나오고 태아가 즉시 따라 나오는 盤腸産, 手足이 먼저 나오는 橫逆産, 胎兒가 腹中에서 죽어 産母가 위급할 때의 치료법 등을 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胞衣不下條는 解産 후 태반(胞衣)이 나오지 않을 때의 치료법을, 解産 후의 諸病을 다루고 있는 産後諸病條는 産後에 瘀血이 上衝할 때, 産後 腹痛, 産後 壯熱과 頭痛, 産後 煩滿, 산 후에 陰戶가 들어가지 않을 때 또는 産後 陰通, 젖이 나오지 않을 때 또는 乳腫으로 인한 여러 병증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婦人의 陰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다룬 陰病條는 陰戶가 挺出되거나 아플 때, 陰이 冷痛할 때, 陰中에 瘡이 났을 때, 음이 가려울 때(陰痒)의 치료법을, 그리고 血崩帶下條는 下血이 멈추지 않는 血崩과 흰빛 또는 붉은 빛의 분비액(冷)이 흐르는 帶下의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다.

신생아의 급병을 다룬 小兒初生急病條는 初生兒의 丹毒과 초생아가 배꼽이 떨어진 後 風濕, 臍風證, 臍突 등의 瘡處 치료법을, 소아의 驚風을 다루고 있는 驚風條는 소아의 驚癇과 客忤의 치료법을, 소아가 토하고 설사를 할 때의 치료법을 다룬 吐瀉條는 水泄이 그치지 않을 때의 치료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소아의 입안에 난 瘡를 다룬 疳瘡條는 입안이 헐었을 때, 走馬疳²³⁾으로 齒根이 문드러졌을 때의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고, 어린이의 온몸에 瘡가 나 헐었을 때의 치료법을 다룬 瘡疾條는 온몸에 창이 나서 潰爛 되었을 때, 惡瘡, 月蝕瘡, 頭瘡 및 顛門이 봉합되지 않았을 때, 外腎이 腫大할 때의 치료법이며, 癥瘕條는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체해서 積으로 속에 멍쳐 있을 때의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蟲痛條는 “貫衆과 赤小豆를 물에 달여 빈속에 먹인다”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증을 다룬 것인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貫衆(회초미뿌리)은 모든 毒을 풀리게 하며 3蟲을 죽이고, 寸白蟲을 없애며 癥瘕를 破하는²⁴⁾ 藥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내용은 除蟲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辟瘟志는 때의 時候가 調和를 상실하여 瘟疫(전염병)이 성할 때 辟瘟의 법을 기술한 것으

22) 벌레들이 토해 낸 실(絲)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23) 腎疳 또는 急疳이라고도 한다. 흔히 마마를 앓은 뒤에 餘毒이 있는 데다 또 젓과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못하여 단맛이 脾에 들어가 벌레가 생겨서 위로 잇몸을 파먹으면 입이 헐어 피가 나오고 냄새가 나며, 심하면 이뿌리가 썩어 문드러져서 이가 검어지면서 빠지고, 볼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走馬疳이라 한다.(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小兒, 諸疳: 走馬疳, p.645, 下17-19行. “腎疳 又名急疳 多因痘後餘毒 更加乳食不調 甘味入脾而生虫 上蝕齒齦則口瘡出血臭氣 甚則齒根潰爛 齒黑脫落 顯有穴者 名曰走馬疳 … 『입문』”)

24)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卷三, 草部 p.734, 上13行. “貫衆 … 主諸毒 殺三虫 去寸白蟲 破癥瘕”

로, 辟瘟은 條의 구분이 없이 症狀別로 치료법을 열거하고 있다. 『尹方』의 인용내용은 疫氣가 발생하여 처음 두통을 깨달았을 때, 熱病으로 發狂할 때, 大頭瘟²⁵⁾을 앓는 자가 頭面이 腫大되면서 혹 터져 고름이 나오는 경우의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 『尹方』이 수록된 救急志와 辟瘟志를 살펴본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처치법 및 질병의 치료 등 58개 條, 즉 58개의 病症에 대한 치료법이 기술되었고, 辟瘟志는 條의 구분없이 3개의 증상별로 나누어 8개항이 인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節에서는 『尹方』의 문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尹方』의 문헌적 특성

『尹方』의 문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尹方』이 수록된 條를 중심으로 조선조 초기에 편찬된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어떤 病門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다시 現代臨床 分野의 各科로 분류하여 본서의 문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⁶⁾

猝死條와 客忤猝厥條는 『鄉藥集成方』 卷53 <諸救急門>과 『醫方類聚』 卷194-195 <救急門>에 대응하며, 中風條는 『鄉藥集成方』 卷1 <風病門> 口面喎斜와 『醫方類聚』 卷13-24 <諸風門>, 中暑條는 『鄉藥集成方』 卷9 <暑病門> 暑와 『醫方類聚』 卷25-26 <諸暑門>, 傷寒條는 『鄉藥集成方』 卷6-8 <傷寒門>과 『醫方類聚』 卷27-63 <傷寒門>에서 다루고 있다.

猝疝痛條는 『鄉藥集成方』 卷21 <諸疝門>과 『醫方類聚』 卷89-91 <諸疝門>, 猝癲狂條는 『醫方類聚』 卷159-160 <癲癩門>에 대응되며, 『鄉藥集成方』에는 관련되는 門이 없다. 大便不通條는 『鄉藥集成方』 卷20 <大小便門> 大便不通過와 『醫方類聚』 卷134-136의 <大小便門>, 咳逆條는 『醫方類聚』 卷113 <咳逆門>에 해당되며, 『鄉藥集成方』에는 다루고 있는 門은 없으나 卷24-25 <諸欬門>에 대응시킬 수 있다. 猝噎條는 『鄉藥集成方』 卷26 <膈噎門>과 『醫方類聚』 卷105-106 <膈噎門>, 急喉閉條는 『鄉藥集成方』 卷36 <咽喉門> 咽喉痛論·喉痺와 『醫方類聚』 卷74-76 <咽喉門>, 失欠脫頰條는 『醫方類聚』 卷76 <口舌門>의 『巢氏病源』에 '失欠頰車蹉候'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鄉藥集成方』 卷34 <口舌門>과 『醫方類聚』 卷76 <口舌門>

25) 頭痛, 發熱이 심하고 얼굴과 귀의 앞뒤가 부어오르며 때로는 목구멍 속이 붓고 벌겍게 되는 병이다. 노두풍(顛頭風), 이두운(狸頭瘟), 시독(時毒)이라고도 한다.(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산림경제Ⅱ』,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p. 122)

26) 본 분류는 金斗鐘이 鄉藥集成方 및 醫方類聚의 각 病門들을 現代臨床 各科의 아래에 분류한 표를 참고로 하였다.(金斗鐘, 『韓國醫學史(全)』, 서울: 探求堂, 1966. pp. 284-286)

에 대응시키고자 한다.²⁷⁾

腸頭出條는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에 해당되는 門이 없으나, 현대의학에서는 外科의인 수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外科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脣腫條는 『鄉藥集成方』 卷34 <口舌門> 脣瘡과 『醫方類聚』 卷76-77 <口舌門>, 腦背腫條는 『鄉藥集成方』 卷41 <癰疽瘡瘍門> 發背와 『醫方類聚』 卷170-178 <癰疽門>, 疔腫條는 『鄉藥集成方』 卷42 <癰疽瘡瘍門> 疔瘡과 『醫方類聚』 卷178-179 <疔瘡門>에, 陰蝕瘡條는 『鄉藥集成方』 卷45 <癰疽瘡瘍門> 妬精瘡陰蝕瘡, 陰瘡, 陰下濕痒과 『醫方類聚』 卷188-193 <諸瘡門>에서 다루고 있다.

鍼瘡出血不止條는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에는 해당되는 門이 없지만, 외과적인 상처이므로 現代臨床의 外科 및 皮膚科에 분류하고자 한다. 丹毒條는 『鄉藥集成方』은 卷73 <小兒科> 小兒一切丹과 『醫方類聚』는 卷179 <丹毒門>, 卷249 <小兒門> 丹毒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그러나 『尹方』은 大小人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醫方類聚』 卷179 <丹毒門>에 대응시키고자 한다. 癩疹條는 『醫方類聚』 卷168 <隱疹門>에 대응한다.

豆腐毒條·燒酒毒條·諸魚毒條·菌蕈毒條는 『鄉藥集成方』 卷51 <諸中毒門>과 『醫方類聚』 卷161-164 <解毒門>, 湯火傷條는 『鄉藥集成方』 卷48 <諸損傷門> 湯火瘡과 『醫方類聚』 卷194 <湯火傷門>, 金刀傷條는 『鄉藥集成方』 卷48 <折傷跌撲門> 金瘡과 『醫方類聚』 卷184 <金瘡門>, 打壓傷條·骨折筋斷傷條·手足折傷條·肢節脫解條·杖傷條는 『鄉藥集成方』 卷47 <折傷跌撲門> 打撲損傷과 『醫方類聚』 卷184-188 <折傷門>에 해당한다. 熊虎咬條·犬咬傷條·猪咬傷條·鼠咬傷條·蛇咬傷條·蜈蚣咬傷條·雜蟲傷條는 『鄉藥集成方』 卷49-50 <蟲獸傷門>, 『醫方類聚』 卷166-168 <獸傷門>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諸虫入耳鼻條·蟻子入耳條는 『鄉藥集成方』 卷51 <蟲獸傷門> 諸蟲咬人과 『醫方類聚』 卷78 <鼻門>, 卷77-78 <耳門>에 각각 대응하며, 誤吞諸物條와 諸骨鯁在咽條는 『鄉藥集成方』 卷49 <諸損傷門> 誤吞諸物과 『醫方類聚』 卷73-75 <咽喉門>에, 그리고 諸物入目條는 『鄉藥集成方』 卷32 <眼病> 迷目과 『醫方類聚』 卷64-67 <眼門>에서 다루고 있다.

難産條는 『鄉藥集成方』 卷61-62 <産難門>과 『醫方類聚』는 卷206-238 <婦人門> 중 卷228-229 <婦人門> 難産에 대응하며, 胞衣不下條는 『鄉藥集成方』 卷63 <産後門> 胞衣不出과 『醫方類聚』 卷229 <婦人門> 胞衣不下, 産後諸病條는 『鄉藥集成方』 卷63-66 <産後門>과 『醫方類聚』 卷230-238 <婦人門> 産後, 陰病條는 『鄉藥集成方』 卷56 <女陰門> 婦人陰挺出下脫·婦人小戶嫁痛·婦人陰冷·婦人陰瘡·婦人陰痒과 『醫方類聚』 卷220 <婦人門> 陰腫에서, 血崩帶下條는 『鄉藥集成方』 卷54 <崩漏門> 崩中帶下와 『醫方類聚』 卷206-210 <婦人門> 調經에 각각 대응한다.

小兒初生急病條는 『鄉藥集成方』 卷74 <小兒科> 小兒一切丹·小兒臍風·小兒臍腫濕久不差·

27) 『鄉藥集成方』 卷34 <口舌門>과 『醫方類聚』 卷76 <口舌門>은 모두 口(口)와 혀(舌)에 나는 창(瘡)을 주로 다루고 있다.

小兒臍瘡과 『醫方類聚』卷239-266 <小兒門> 중 卷249 丹毒과 卷241 臍病에 대응하며, 驚風條는 『鄉藥集成方』卷68 <小兒科> 小兒客忤와 卷70 <小兒科> 小兒驚癇 그리고 『醫方類聚』卷255-260 <小兒門> 驚癇과 卷261 <小兒門> 中惡(附 客忤)에 대응한다. 吐瀉條는 『鄉藥集成方』卷71 <小兒科> 小兒一切痢久不差와 『醫方類聚』卷250-252 <小兒門> 諸痢, 疳瘡條는 『鄉藥集成方』卷70 <小兒科> 小兒一切疳과 『醫方類聚』卷253-255 <小兒門> 諸疳, 瘡疾條는 『鄉藥集成方』卷73 <小兒科> 小兒頭面身體生瘡·小兒惡瘡·小兒月蝕瘡·小兒痘瘡 그리고 卷75 <小兒科> 小兒陰癩 등과 『醫方類聚』는 卷247-248 <小兒門> 癰疽와 卷252 <小兒門> 癩疔, 癩癬條는 『鄉藥集成方』卷71 <小兒科> 小兒癩瘻과 『醫方類聚』卷246 <小兒門> 積聚, 蟲痛條는 『醫方類聚』卷252 <小兒門> 諸蟲에 대응한다.

그리고 條의 구분없이 症狀別로 治療법을 열거하고 있는 辟瘟志는 『鄉藥集成方』卷8 傷寒門(附 辟瘟病方)과 『醫方類聚』卷194 <怪疾門>에 대응한다.

이상과 같이 『尹方』이 인용된 각 條를 兩書의 각 病門에 대응시켜 본 결과, 『鄉藥集成方』에 관련되는 門은 <膈噎門>, <口舌門>, <大小便門>, <崩漏門>, <產難門>, <產後門>, <傷寒門>, <暑病門>, <小兒科>, <眼病>, <女陰門>, <癰疽瘡瘍門>, <咽喉門>, <折傷跌撲門>, <諸救急門>, <諸疔門>, <諸損傷門>, <諸中毒門>, <諸效門>, <蟲獸傷門>, <風病門> 등 21개 門에 대응하며, 『醫方類聚』는 <膈噎門>, <怪疾門>, <救急門>, <口舌門>, <金瘡門>, <丹毒門>, <大小便門>, <婦人門>, <鼻門>, <傷寒門>, <小兒門>, <獸傷門>, <眼門>, <癰疽門>, <隱疹門>, <耳門>, <咽喉門>, <癩癬門>, <折傷門>, <疔瘡門>, <諸疔門>, <諸暑門>, <諸瘡門>, <諸風門>, <湯火傷門>, <解毒門>, <咳逆門> 등 27개 門에 대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尹方』의 문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金斗鐘²⁸⁾이 분류한 內科, 外科 및 皮膚科, 產婦人科(附 醫女·產婆), 小兒科(附 痘科), 泌尿科, 眼科, 耳鼻咽喉科, 齒科, 中毒 및 救急門 등 9개 科에 대비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尹方』과 歷代 醫學文獻 및 現代臨床 各科와의 비교

尹方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現代臨床 各科
猝死	諸救急門	救急門	中毒 및 救急門
客忤猝厥	諸救急門	救急門	中毒 및 救急門
中風	風病門	諸風門	內科
中暑	暑病門	諸暑門	內科

28) 金斗鐘, 韓國醫學史(全). 서울: 探求堂, 1966. pp. 284-286.

傷寒	傷寒門	傷寒門	內科
猝疝痛	諸疝門	諸疝門	泌尿科
猝癲狂		癲癇門	內科
大便不通	大小便門	大小便門	內科
咳逆	[諸欬門]	咳逆門	內科
猝噎	膈噎門	膈噎門	內科
急喉閉	咽喉門	咽喉門	耳鼻咽喉科
失欠脫頰	口舌門	口舌門	耳鼻咽喉科
腸頭出			外科
脣腫	口舌門	口舌門	耳鼻咽喉科
腦背腫	癰疽瘡瘍門	癰疽門	外科 吳 皮膚科
疔腫	癰疽瘡瘍門	疔瘡門	外科 吳 皮膚科
陰蝕瘡	癰疽瘡瘍門	諸瘡門	外科 吳 皮膚科
鍼瘡出血不止			外科 吳 皮膚科
丹毒		丹毒門	外科 吳 皮膚科
癩疹		癩疹門	外科 吳 皮膚科
豆腐毒	諸中毒門	解毒門	中毒 吳 救急門
燒酒毒	諸中毒門	解毒門	中毒 吳 救急門
諸魚毒	諸中毒門	解毒門	中毒 吳 救急門
菌蕈毒	諸中毒門	解毒門	中毒 吳 救急門
石藥毒	諸中毒門	解毒門	中毒 吳 救急門
湯火傷	諸損傷門	湯火傷門	外科 吳 皮膚科
金刃傷	折傷跌撲門	金瘡門	外科 吳 皮膚科
砲矢傷	折傷跌撲門	金瘡門	外科 吳 皮膚科
打壓傷	折傷跌撲門	折傷門	外科 吳 皮膚科
骨折筋斷傷	折傷跌撲門	折傷門	外科 吳 皮膚科
手足折傷	折傷跌撲門	折傷門	外科 吳 皮膚科
肢節脫解	折傷跌撲門	折傷門	外科 吳 皮膚科
杖傷	折傷跌撲門	折傷門	外科 吳 皮膚科
熊虎咬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犬咬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猪咬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鼠咬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蛇咬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蜈蚣咬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蜂螫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雜虫傷	蟲獸傷門	獸傷門	外科 吳 皮膚科
諸虫入耳鼻	蟲獸傷門	鼻門	耳鼻咽喉科

蟻子入耳	蟲獸傷門	耳門	耳鼻咽喉科
誤吞諸物	諸損傷門	咽喉門	耳鼻咽喉科
諸骨鯁在咽	諸損傷門	咽喉門	耳鼻咽喉科
諸物入目	眼病	眼門	眼科
難産	難産門	婦人門	産婦人科
胞衣不下	産後門	婦人門	産婦人科
産後諸病	産後門	婦人門	産婦人科
陰病	女陰門	婦人門	産婦人科
血崩帶下	崩漏門	婦人門	産婦人科
小兒初生急病	小兒科	小兒門	小兒科
驚風	小兒科	小兒門	小兒科
吐瀉	小兒科	小兒門	小兒科
疳瘡	小兒科	小兒門	小兒科
瘡疾	小兒科	小兒門	小兒科
癩癬	小兒科	小兒門	小兒科
蟲痛		[小兒門]	小兒科
辟瘟	傷寒門(附 辟瘟病方)	怪疾門	內科

위의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內科는 中風, 中暑, 傷寒, 猝癲狂, 大便不通, 咳逆, 猝噎 등 7개 條와 辟瘟志를 분류할 수 있고, 外科 및 皮膚科는 腸頭出, 腦背腫, 疔腫, 陰蝕瘡, 鍼瘡 出血不止, 丹毒, 癰疹, 湯火傷, 金刀傷, 砲矢傷, 打壓傷, 骨折筋斷傷, 手足折傷, 肢節脫解, 杖傷, 熊虎咬傷, 犬咬傷, 猪咬傷, 鼠咬傷, 蛇咬傷, 蜈蚣咬, 蜂螫傷, 雜虫傷 등 23개 條가 속한다. 産婦人科는 難産, 胞衣不下, 産後諸病, 陰病, 血崩帶下 등 5개 條가 해당하며, 小兒科(附 痘科)는 小兒初生急病, 驚風, 吐瀉, 疳瘡, 瘡疾, 癩癬, 蟲痛 등 7개 條가 속한다. 泌尿科는 猝疝痛 1개 條, 眼科는 諸物入目 1개 條, 耳鼻咽喉科는 急喉閉, 失欠脫頤, 脣腫, 諸虫入耳鼻, 蟻子入耳, 誤吞諸物, 諸骨鯁在咽 등 7개 條, 中毒 및 救急門에 해당되는 條는 猝死, 客忤猝厥, 豆腐毒, 燒酒毒, 諸魚毒, 菌蕈毒, 石藥毒 등 7개 條가 포함된다.

따라서 『尹方』의 문헌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조선조 초기에 편찬된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어떤 病門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다시 現代臨床 分野의 各科로 분류해 본 결과 『尹方』의 문헌적 특성은 내과, 외과 및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비뇨과, 안과, 이비인후과, 중독 및 구급문 등 의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綜合醫書의 문헌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IV. 結 論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수많은 醫書 중 현재 어떤 고서목록에도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은 逸失 醫書인 『尹方』에 대하여 찬술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문헌적 성격을 새로이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서의 찬술지는 病症에 대한 치료방법 및 도구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醫人들의 經驗方을 수집하여 엮은 醫書로 추정할 수 있다.

본서의 찬자는 坡平 또는 海平의 尹氏의 家에서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본서가 尹氏 家에 家傳된 醫書로 단정한다면 집안 대대로 醫師를 배출한 海平 尹氏 家의 편찬으로 추정된다.

撰述時期는 조선시대 前出 醫學文獻과의 인용관계를 살펴본 결과 17세기 중엽 이후 또는 18세기 초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사료된다.

『尹方』이 수록된 救急志와 辟瘟志를 살펴본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처치법 및 질병의 치료 등 58개 條, 즉 58개의 病症에 대한 치료법이 기술되었고, 辟瘟志는 條의 구분없이 3개의 증상별로 나누어 8개항이 인용되었음이 밝혀졌다.

『尹方』의 문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대임상분야별로 대비하여 본 결과 내과, 외과 및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비뇨과, 안과, 이비인후과, 중독 및 구급문 등 의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종합의서의 문헌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山林經濟』의 여러 곳에 散見되고 있는 『尹方』의 내용을 집일하여 臨床 分野別로 원문의 내용을 복원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救急簡易方(諺解)』. 影印本. 韓國醫學大系 2. 서울 : 驪江出版社, 1988.
 『救急方』. 影印本. 韓國醫學大系 1. 서울 : 驪江出版社, 1988.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 探求堂, 1966.
 盧基春, 『山林經濟의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99,6.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산림경제 I·II』.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 南大阪印刷センタ, 1973.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 (株)敎文社, 1994.

- 『醫科先生案』. 韓國醫學大系 50. 서울 : 驪江出版社, 1988.
- 『鄉藥救急方』. 影印本. 韓國醫學大系 1. 서울 : 驪江出版社, 1988.
- 『鄉藥集成方』. 影印本. 韓國醫學大系 3~6. 서울 : 驪江出版社, 1988.
- 許 浚. 『東醫寶鑑』. 影印本. 서울: 南山堂, 1986.
- 許浚 改撰, 『診解救急方』. 影印本. 韓國醫學大系 1. 서울 : 驪江出版社, 1988.

〔부록〕 『尹方』의 復元

『尹方』의 復元은 『山林經濟』의 여러 곳에 散見되고 있는 내용을 執一하여 現代醫學의 臨床 分野別로 복원을 시도하였다.(단, []는 尹方에는 없는 내용으로 증상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山林經濟』의 전후문맥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臨床分野別	症狀別	항번호	내용
內科	中風	01	○口眼喎斜向左則石灰水調即於右邊塗之向右則左邊塗之候其方正如舊即以水洗下大效
	中暑	01	○〔夏月在道中中暑死者及昏冒痰厥吐瀉喘滿大渴汗出頭痛燥煩欲死者〕槐花軟筍濃煎服即效後不復發
	傷寒	01	○傷寒初症葛根汁竹瀝梔子十枚煎湯生梨汁皆效
		02	○乾薑鹿剉浸月經待其透濕炒黑作末取三錢用月經童便各三種子微溫調服無論防勞染病彌留十餘日或數十日未和解爲急熱時用之輒效
	猝癩狂	01	○〔人發狂悲泣呻吟此爲邪祟或歌或哭或吟或笑或坐溝渠啖食糞穢或裸體露形晝夜遊走或向壁隱伏不欲見人〕白狗血飲之又算麻仁湯常服又敗天公(오패쁘던피랑이)燒末酒調服之
	大便不通	01	○〔大便久不通腹脹煩悶〕生桔梗浸油醬插入肛門即通
	咳逆	01	○〔傷寒及久病得咳逆皆爲惡候〕刮取春杵頭細糠吞之即效
	猝噎	01	○猝噎食不下刮取春杵頭細糠吞之即效
	辟瘟	01	○初覺頭痛芥子爲末填臍中隔衣一層以熟物熨之即汗而愈
		02	○熱病發狂野人乾(卽人糞乾者)沸湯沃服又牡猪屎水漬取汁服又地龍汁飲之又臘雪水飲之又水中細苔搗取汁飲之並效
		03	○大頭瘟者頭面腫大如斗或潰裂濃出染此者十死八九用藥?鼻嚏者可治不嚏者不可治也病人每日用嚏藥三五次以泄毒氣左右看病之人日日用藥嚏之必不傳染過得十日不治自愈
		04	○嚏藥玄胡索一兩半皂角川芎各一兩藜蘆五錢躑躅花二錢半爲末用少許?入鼻中得嚏日二三次
		05	○〔大頭瘟者〕治方大黃酒洗四兩皂角二兩爲末糲糊和丸菽豆大每五十九或七十九菜豆煎湯吞下大汗爲效
	06	○又羌活黃芩酒炒大黃酒蒸各一錢煎水時時呷服妙	
	07	○頭面腫盛宜周匝鍼刺以出惡血妙	
外科	腸頭出	01	○大人小兒腸頭出百草霜五倍子爲末醋熬成膏鵝毛塗之即愈
	腦背腫	01	○背腫以鹿黃色石如鵝卵者猛火燒令赤醇醋中投入自有石屑落醋裡頻燒至石盡取屑晒乾爲末醋調塗之
	疔腫	01	○疔初發時牛蒡子吞一粒其頭卽出以眞末作餅孔之用黃蠟熔點又白礬熔化少許入鹽水(合)浸之一晝夜卽解(一方礬入鹽水煮一沸浸之限差)又生大豆一握嚼和涎塗之手足疔炒又白礬熔化少許入鹽水(合)浸之一晝夜卽解(一方礬入鹽水煮一沸浸之限差)又生大豆一握嚼和涎塗之手足疔炒
	04	○手指忽腫痛不已地榆煮作湯漬之半日愈又黃泥水調塗指周匝厚一寸許納熱灰中煨之令燥視皮皴卽愈	

臨床分野別	症狀別	항번호	내용
		05	○凡毒腫初發土蜂窠上細土醋和爲泥付之柳葉若皮入鹽少許煮洗之
		06	○人鬚燒付之又鹽湯溫洗日三次如已成濃白丁香塗之立潰
	陰蝕瘡	01	○【陰莖瘡處】多年盛鹽石以水濃煎洗之
		02	○男子陰腫痛不能堪者蕪菁根搗付
		03	○陰莖瘡痛黃栢煮汁洗之更爲末付之又蜜煎甘草塗之
		04	○男子陰瘡發毒皮肉毀爛諸藥不效生松脂罨塗患處以木葉及軟帛裹之松脂乾卽愈
		05	○陰邊生瘡及陰濕痺皮剝裂及濕痒停水處桑根皮煮汁洗之
		06	○陰痒生瘡胡麻子嚼付
		07	○陰囊濕痒汁出鑄錘鈕孔中黃土細末模之又黃大豆生嚼付之又車前子煮去滓洗之
		08	○唐瘡水銀與棗肉和涎研作泥晒乾或溫突取乾盛於竹筒火燃香烟
	鍼瘡出血不止	01	○人尿燒灰付之
	丹毒	01	○【走馬火丹】藜蘘(동 의 십 가 비)搗付又藍葉汁飲之又葶麻子五斤去皮作泥入糲一匙水調塗之小兒尤效又石灰和醋塗之
	癩疹	01	○石灰和醋塗之
		02	○黑紅兩色癩疹鷄子黃赤豆荊芥搗勻塗付
	湯火傷	01	○凡被火傷卽以醋水塗之仍貼以紙連塗令濕雖至焦爛止痛後又無痕又毛段燒作末油付又新尿冷飲之
	金刃傷	01	○【金瘡腸出不能納者】乾人屎抹於腸腸卽自入
		02	○刀斧傷赤白皮剝取裹之令汗入瘡中又蘇木末付之蠶繭包付數日如故又急取白糲付之藍葉汁飲之
	砲矢傷	01	○毒箭傷芋根搗日夜數易藍葉汁飲之
	打壓傷	01	○【凡打壓死者心頭溫皆可救急】松烟入好生酒灌之
	骨折筋斷傷	01	○【骨折】山柘生爲末五分飛糲糲三棧薑汁和搽患處一日夜皮肉青黑是其驗也
	手足折傷	01	○跌傷作腫痛不可忍梔子白糲爲末水調搽之乾則晒水卽效
	肢節脫解	01	○四肢節脫但有皮連不能舉動名筋解黃芪三兩酒浸一宿取出焙乾爲末每二棧酒下
	杖傷	01	○大黃爲末童便調頻付
	熊虎咬傷	01	○【虎咬傷】月經衣布付之傷處又白礬末納瘡中裹之
	犬咬傷	01	○【咬瘡久不差口吐白沫叫喚似犬聲爲犬毒入心也】虎胆和水服又黑豆煮汁服
	豬咬傷	01	○屋漏水洗之又松脂作餅付之
	鼠咬傷	01	○生薑擦猫口取涎塗之
	蛇咬傷	01	○【凡蛇毒】卽刮自己中腦子納傷處
		02	○【蛇骨刺人腫痛】大豆葉搗付
	蜈蚣咬	01	○桑白皮取汁塗之又地龍汁塗之又木米作餅付
		02	○雄鷄冠血塗之
	蜂螫傷	01	○醇酒塗之又薄荷搗付

臨床分野別	症狀別	항번호	내용
	雜虫傷	01	○蚯蚓咬鷄屎塗之又急煎塩湯浸洗
		02	○[諸毒虫咬傷]香油浸紫蘇塗之
泌尿科	猝疝痛	01	○炒鹽熨痛處
		02	○千年瓦三十七介碎作突子大列置臍下至橫骨上灸之以陰囊汁出爲限
産婦人科	難産	01	○[難産日久漿水多下胞乾兒不得下]益母草連根葉播擲酒服又兔頭骨并毛皮燒灰作末丸酒服
		02	○[盤腸産]兔頭骨並毛皮燒灰爲末丸酒服
		03	○[兒脚先生急]以手中指取鑄(釜也)底黑交畫兒足下卽順生
		04	○[橫逆産者及子死腹中難産危急]艾葉汁半升清酒四升煮取一升服之
		05	○子死腹中其母氣欲死伏龍肝末三錢水調服其土當兒頭戴出至妙又鹿角屑二三方寸匙煮葱豉湯和服立出
	胞衣不下	01	○兔頭骨并毛皮燒灰爲末丸酒服又大豆半升醇酒煮至半分三次服又伏龍肝醋調物納臍中甘草湯服之神效
	産後諸病	01	○産後瘀血衝心脹痛欲死兔頭骨並毛皮燒灰爲末丸酒服
		02	○産後腹痛戶限下土末一錢酒調熱服又白丁香方寸匙煖酒服
		03	○産後壯熱頭痛頰赤昏焦口乾燥煩昏悶松黃湯(松花蒲黃川芎當歸石膏)等分松花少許水煎細呷
		04	○産後不能食煩滿小豆三七枚燒作屑篩冷水頓服
		05	○産後陰戶不斂陳葱生搗炒炭
		06	○産後陰通蛇床子布裹蒸炭
		07	○乳汁不下死鼠一頭燒存性和酒方寸匙服勿令病者知之
		08	○乳腫初發蕎麥末水調塗四圍乾則又塗於其內漸漸入塗至腫
		09	○乳腫增寒熱麥芽二三兩炒熟水煎服
		10	○乳腫堅硬身熱增痛不進食飲樺皮爲末一錢酒下卽睡而差
		11	○乳腫膿潰久不合成癢瘡爛烏鷄生刮其胸掩覆爛瘡則雖成虫虫盡出于鷄肉不過三鷄而差
	陰病	01	○陰戶挺出不脫白礬燒灰一錢空心溫酒服蛇床子布裹蒸炭
		02	○陰戶作痛烏賊骨燒末酒下方寸匙日三
		03	○陰冷痛丁香顆大者曰雌取而作末封紗帛納陰中痛卽止
		04	○陰中生瘡如虫咬桃葉生搗綿裹納陰日三四易又胡麻生嚼塗之
		05	○陰痒小蘇(초새옹)水煮熱洗日三小蒜亦好又鷄肝乘熱納陰中虫盡出牛肝取三寸納之半日虫盡入肝肉猪肝亦好
	血崩帶下	01	○血崩地榆湯一合服之
		02	○帶下桃仁去皮雙仁細研和好酒一瓶隨量飲之
小兒科	小兒初生急病	01	○蕎麥糲和醋付之又伏龍肝末和鷄子白塗之乾則易之
		02	○丹毒草麻子五箇去皮搗入糲一匙水調塗之甚效
		03	○當歸末付之瘡處
	驚風	01	○一百二十種驚癇蛇蛻燒灰服之鷄冠血少許滴口中又用無價散
		02	○驚癇客忤虎胆研水服蟬退水調開攤紙上貼心上

臨床分野別	症狀別	항번호	내용
	吐瀉	01	○水洗不止五倍子爲末陳醋調稀熬成膏貼臍上
	疔瘡	01	○口瘡糜爛五倍子細末摻之
		02	○瘡肉食之付之
	瘡疾	01	○滿身生瘡作爛半天河水微溫頻洗
		02	○惡瘡竹葉燒和鷄子黃付之又蟻蚋少許絞汁塗之
		03	○月蝕瘡成爛兔屎納於蝦蟆腹中燒灰付之
		04	○頭瘡及顛不合龜甲燒灰付之
		05	○外腎腫大牡蠣爲末鷄子清調塗卽消
	癥癖	01	○三稜末量兒大小和乳又棗肉爛研乳調與兒食之又老鼠肉煮汁下米作粥與食之
	蟲痛	01	○貫衆赤小豆水煎空心服
眼科	諸物入目	01	○栗殼煎水頻洗
		02	○栗殼刺入目蟬螬取汁注之
		03	○菁菜汁點之又塩炒細末點之
耳鼻咽喉科	急喉閉	01	○喉閉枯白礬末吹入喉又薏苡仁七枚含之
		02	○咽喉閉塞偏身浮腫牛蒡子一合半生半熟爲末酒調服
		03	○急喉痺生油一合灌之如未效急解髮令散當頂心取方寸許急促痛拔少頃當通
	失欠脫頰	01	○黃蠟照火作片乘熱貼付緩邊限差
	脣腫	01	○脣腫生鼠剖腹去臍腑和血付之雖毒腫無不卽差
	諸虫入耳鼻	01	○取鏡與陶器打作聲亦出
	蟻子入耳	01	○猪肉一指許炙令香置耳孔邊卽出又燈心浸油釣出
	誤吞諸物	01	○誤吞木屑槍喉欲死鐵斧磨水灌之
		02	○小兒吞錢不出煮葵汁冷飲卽出根葉子同功
		03	○誤吞桃李梗喉不下狗頭煮湯摩頭上差
		04	○誤吞髮繞喉不出亂髮灰水調一錢服又舊木油梳末酒調服
	諸骨鯁在咽	01	○威灵仙爲末酒服又好醋吞嚥長在喉中不久消化
		02	○玉簪花醋煮不着齒吞下
		03	○大蒜塞鼻卽出又鹿角含之津嚥下
		04	○東流水一盞東向坐以手指水上書龍字訖飲之
中毒 및 救急門	猝死	01	○勿以火照之但痛嚙其踵及足母指甲際而多睡(或作唾)其面卽活又以井底泥塗面目令人垂頭於井中呼起姓名便起
		02	○驚怖猝死以溫酒多灌之
	客忤猝厥	01	○以皂角末吹鼻或研韭汁灌耳中灸臍中百壯
	豆腐毒	01	○過飽幾死着垢組(씨무든 당기)或着垢衣領皮(씨무든 동정)水洗飲之卽解
	燒酒毒	01	○柿葉搗汁灌之
	諸魚毒	01	○大豆汁紫蘇汁服之
	菌蕈毒	01	○瓠瓢燒灰和水飲之
	石藥毒	01	○好白蠟三五錢播細冷水調灌